

The 논술	2016 성균관대 인문 1교시
--------	------------------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에 관한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25점)
<제시문 1>	
<p>인간은 개인의 자격만으로는 선을 탐구할 수도 없고 덕을 실천할 수도 없다.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장군에게 좋은 삶과 중세 수녀 혹은 17세기 농부에게 좋은 삶은 동일하지 않다. 나는 다양한 개인들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 산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 혹은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동업 조합 또는 저 직업 집단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 씨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의 담지자로서 나는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들을 물려받는다. 그것들은 삶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하며 나의 삶에 그 나름의 도덕적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p>	
<제시문 2>	
<p>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결합하여 공동 사회를 조직하는 목적은 각각 자기네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그 공동 사회에 속하지 않는 자의 침해에 대해 보다 공고한 안전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로 그와 같이 합의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조금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의 자유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사회나 정부를 형성할 것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곧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정치 체제를 결성하게 되는 것이다.</p>	
<제시문 3>	
<p>개인의 자아 정체성조차도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인간은 공동체를 선택하기 이전에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고, 도덕적 유대에 의해 결합한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따라서 자아는 공동체에 의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부여하는 삶의 목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는 우리가 타인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집단의 조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로서 지니는 특징을 고려하면,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을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서구식 담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집단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풍조 역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p>	
<제시문 4>	
<p>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를 보면,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진딧물은 개미에게 단물을 제공합니다. 진딧물만이 개미의 가축은 아닙니다. 개미는 꽤 여러 종류의 가축을 기릅니다. 개미가 이들을 기르는 방법도 사람과 유사합니다. 목동이 양떼를 몰고</p>	

나가듯이 아침이 되면 개미들은 기르는 곤충들을 물고 올라가서 좋은 잎에다 풀어놓고 보호하다가 저녁때가 되면 다 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반해 우리에게는 공존의 지혜가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우리는 개미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들이 진화의 역사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공존의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만 독불장군처럼 영원히 살 수는 없지요. 남을 배려해야만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제시문 5>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고유한 삶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고유한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선택에는 자율성이 전제되어 있다. 자율성이란,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선택권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며 윤리적 존재인 인간 본연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는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특징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두 가지 연구 결과이다.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시오. (25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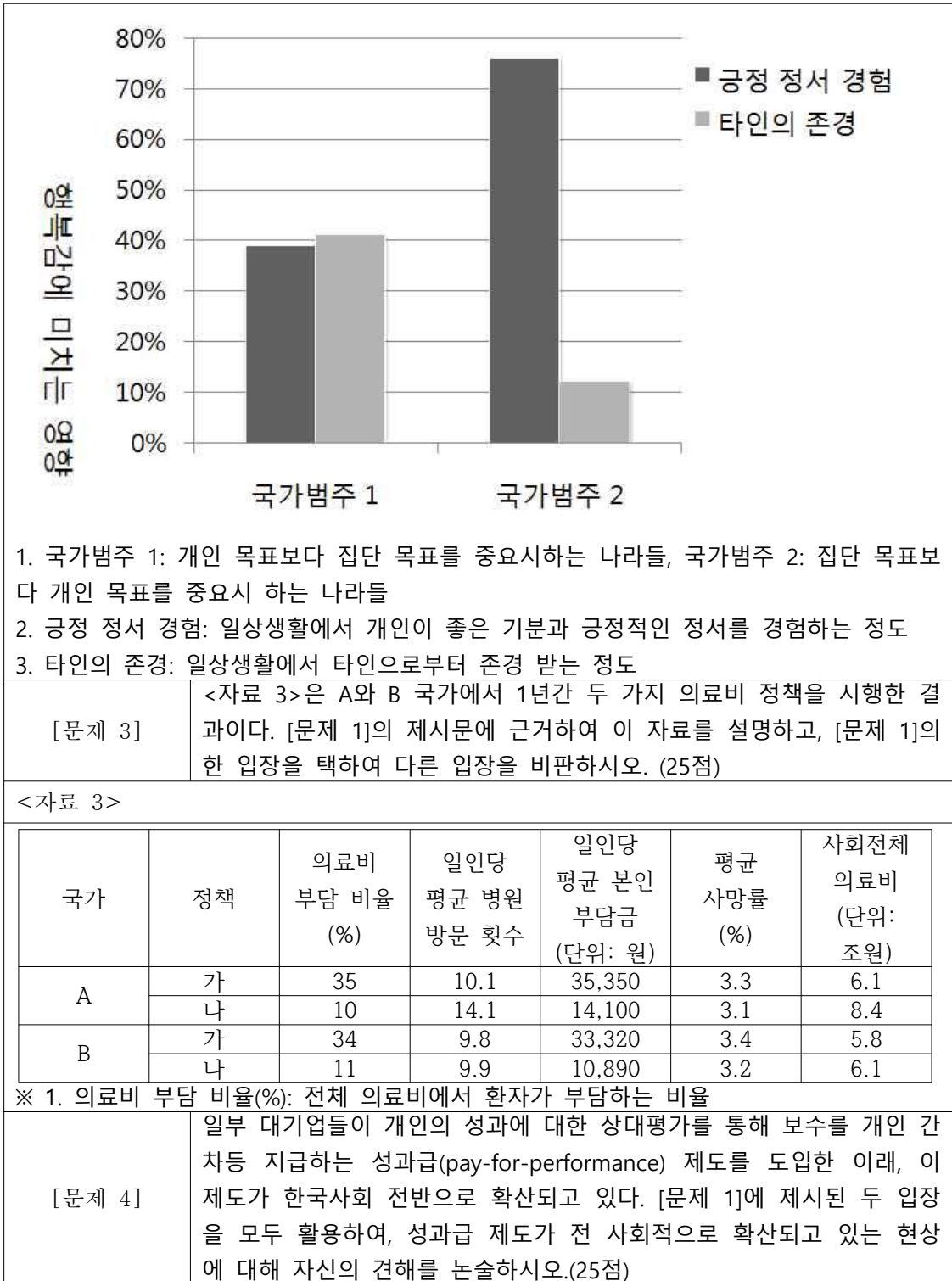
<보기 1>

<자료 1>

국가	목표 우선성	행복감
중국	2.00	16.43
인도네시아	2.20	21.89
덴마크	7.70	25.00
독일	7.35	23.27
한국	2.40	18.42
일본	4.30	20.20
호주	9.00	23.05
오스트리아	6.75	24.28
노르웨이	6.95	25.24
미국	9.55	23.64

1. 목표 우선성 :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상충할 때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는가의 문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목표를 집단 목표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 해당함 (1점~10점)
2. 행복감 : 자신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5점~35점)

<자료 2>



풀이	2016 성균관대 인문 1교시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에 관한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25점)	
1) 기준설정		
기준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에 관한 관점	
2)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집단주의(공동체주의)	VS	개인주의(자유주의)
<제시문 1>		
<p>인간은 개인의 자격만으로는 선을 탐구할 수도 없고 덕을 실천할 수도 없다.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장군에게 좋은 삶과 중세 수녀 혹은 17세기 농부에게 좋은 삶은 동일하지 않다. 나는 다양한 개인들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 산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 혹은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동업 조합 또는 저 직업 집단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 씨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의 담지자로서 나는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들을 물려받는다. 그것들은 삶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하며 나의 삶에 그 나름의 도덕적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p>		
관점 분류	집단주의(공동체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1>은 좋은 삶은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닌 사회를 위한 삶을 지향한다.	
<제시문 2>		
<p>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결합하여 공동 사회를 조직하는 목적은 각각 자기네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그 공동 사회에 속하지 않는 자의 침해에 대해 보다 공고한 안전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로 그와 같이 합의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조금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의 자유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사회나 정부를 형성할 것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곧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정치 체제를 결성하게 되는 것이다.</p>		
관점 분류	개인주의(자유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2>는 공동체 혹은 집단의 결성 목표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역설하며 개인을 사회보다 우선시한다.	
<제시문 3>		
개인의 자아 정체성조차도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인간은 공동체를 선택하		

<p>기 이전에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고, 도덕적 유대에 의해 결합한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따라서 자아는 공동체에 의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부여하는 삶의 목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는 우리가 타인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집단의 조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로서 지니는 특징을 고려하면,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을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서구식 담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집단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풍조 역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p>	
관점 분류	집단주의(공동체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3>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는 존재이기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취보다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성취를 목표로 해야한다고 말한다.
<제시문 4>	
<p>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를 보면,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진딧물은 개미에게 단물을 제공합니다. 진딧물만이 개미의 가축은 아닙니다. 개미는 꽤 여러 종류의 가축을 기릅니다. 개미가 이들을 기르는 방법도 사람과 유사합니다. 목동이 양떼를 몰고 나가듯이 아침이 되면 개미들은 기르는 곤충들을 몰고 올라가서 좋은 잎에다 풀어놓고 보호하다가 저녁때가 되면 다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반해 우리에게는 공존의 지혜가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우리는 개미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들이 진화의 역사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공존의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만 독불장군처럼 영원히 살 수는 없지요. 남을 배려해야만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p>	
관점 분류	집단주의(공동체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4>는 개미와 진딧물의 공생관계를 보여주며 인간 또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제시문 5>	
<p>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고유한 삶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고유한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선택에는 자율성이 전제되어 있다. 자율성이란,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선택권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며 윤리적 존재인 인간 본연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p>	
관점 분류	개인주의(자유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5>는 인간만이 이성을 지녔다는 점에 강조하며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공동체나 집단에 대해서도 개인이 주체성과 자율성을 발휘해야함을 암시한다.
3)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제시문 1>~<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에 관한 관점을 기준

		으로 크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2문단	②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4>는 ‘집단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공통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삶보다 공동체적 차원의 삶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③	<제시문 1>은 좋은 삶은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닌 사회를 위한 삶을 지향한다.
	④	<제시문 3>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는 존재이기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취보다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성취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⑤	<제시문 4>는 개미와 진딧물의 공생관계를 보여주며 인간 또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3문단	⑥	<제시문 2>와 <제시문 5>는 ‘개인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공동체 결성의 근본적 이유도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므로, 공동체는 개인의 주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⑦	<제시문 2>는 공동체 혹은 집단의 결성 목표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역설하며 개인을 사회보다 우선시한다.
	⑧	<제시문 5>는 인간만이 이성을 지녔다는 점에 강조하며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공동체나 집단에 대해서도 개인이 주체성과 자율성을 발휘해야함을 암시한다.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는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특징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두 가지 연구 결과이다.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시오. (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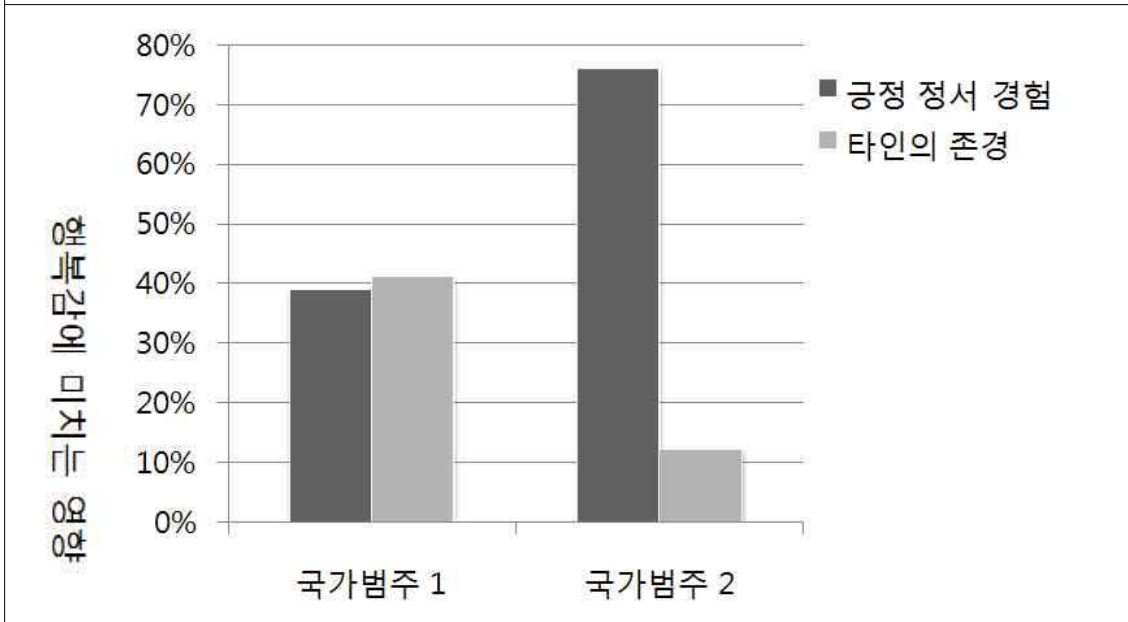
<보기 1>

<자료 1>

국가	목표 우선성	행복감
중국	2.00	16.43
인도네시아	2.20	21.89
덴마크	7.70	25.00
독일	7.35	23.27
한국	2.40	18.42
일본	4.30	20.20
호주	9.00	23.05
오스트리아	6.75	24.28
노르웨이	6.95	25.24
미국	9.55	23.64

1. 목표 우선성 :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상충할 때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는가의 문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목표를 집단 목표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 해당함 (1점~10점)
2. 행복감 : 자신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5점~35점)

<자료 2>



1. 국가범주 1: 개인 목표보다 집단 목표를 중요시하는 나라들, 국가범주 2: 집단 목표보다 개인 목표를 중요시 하는 나라들
2. 긍정 정서 경험: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좋은 기분과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
3. 타인의 존경: 일상생활에서 타인으로부터 존경 받는 정도

1) 자료해석 (두괄식 자료해석의 결과제시 + 구체적 수치로써 근거대기)

<p><자료 1>은 서양의 국가들은 집단의 목표보다 개인의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동양의 국가들은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삶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측정한 행복감 수준은 서양이 동양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의 목표 우선성은 2.00~4.30 사이에 분포하며 행복감은 16.43~21.89 사이에 분포하는데 반해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서양국가들은 6.75~9.55의 목표 우선성과 23.05~25.24의 행복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자료 2>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국가범주 1은 동양의 국가들, 국가범주 2는 서양의 국가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범주 1은 개인보다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하며, 개인의 긍정정서 경험(약 39%) 보다 사회성을 의미하는 타인의 존경(약 41%)이 미세하게나마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범주 2는 이와 반대로 개인의 목표를 우선시하며 개인적 차원의 긍정정서 경험(약 75%)이 타인의 존경(약 12%)보다 행복감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p>	
<p>2) 이전 논의에 자료해석형 문제를 연결시키기</p>	
<p>[문제 1] 두 입장 정리</p>	<p><제시문 1>~<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에 관한 관점을 기준으로 크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p>
	<p><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4>는 '집단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공통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삶보다 공동체적 차원의 삶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p>
	<p><제시문 1>은 좋은 삶은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닌 사회를 위한 삶을 지향한다.</p>
	<p><제시문 3>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는 존재이기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취보다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성취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p>
	<p><제시문 4>는 개미와 진딧물의 공생관계를 보여주며 인간 또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p>
	<p><제시문 2>와 <제시문 5>는 '개인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공동체 결성의 근본적 이유도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므로, 공동체는 개인의 주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p>
	<p><제시문 2>는 공동체 혹은 집단의 결성 목표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역설하며 개인을 사회보다 우선시한다.</p>
	<p><제시문 5>는 인간만이 이성을 지녔다는 점에 강조하며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공동체나 집단에 대해서도 개인이 주체성과 자율성을 발휘해야함을 암시한다.</p>
<p>이를 [문제 1]의 각 입장과 연결시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성취, 삶의 즐거움과 만족이 중요하며 이러한 특징은 서양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대인관계와 집단에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 조화와 협력, 그리고 집단의 성취가 중요하며 이러한 특징은 동양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개인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행복의 지표로 삼으면 그러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잘 충족되는 서양의 국가들이 동양의 국가들보다 행복</p>	

<p>감이 높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동양에서는 문화적 규범을 잘 따르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지가 개인의 행복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서양의 행복 기준을 다른 문화권에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p>	
<p>3) 답안작성</p>	
1문단	<p><자료 1>은 서양의 국가들은 집단의 목표보다 개인의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동양의 국가들은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삶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측정된 행복감 수준은 서양이 동양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의 목표 우선성은 2.00~4.30 사이에 분포하며 행복감은 16.43~21.89 사이에 분포하는데 반해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서양국가들은 6.75~9.55의 목표 우선성과 23.05~25.24의 행복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자료 2>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국가범주 1은 동양의 국가들, 국가범주 2는 서양의 국가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범주 1은 개인보다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 하며, 개인의 긍정정서 경험(약 39%) 보다 사회성을 의미하는 타인의 존경(약 41%)이 미세하게나마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범주 2는 이와 반대로 개인의 목표를 우선시하며 개인적 차원의 긍정정서 경험(약 75%)이 타인의 존경(약 12%)보다 행복감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p>
2문단	<p>이를 [문제 1]의 각 입장과 연결시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성취, 삶의 즐거움과 만족이 중요하며 이러한 특징은 서양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대인관계와 집단에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 조화와 협력, 그리고 집단의 성취가 중요하며 이러한 특징은 동양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개인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행복의 지표로 삼으면 그러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잘 충족되는 서양의 국가들이 동양의 국가들보다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동양에서는 문화적 규범을 잘 따르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지가 개인의 행복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서양의 행복 기준을 다른 문화권에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p>

[문제 3] <자료 3>은 A와 B 국가에서 1년간 두 가지 의료비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문제 1]의 제시문에 근거하여 이 자료를 설명하고, [문제 1]의 한 입장을 택하여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25점)

<자료 3>

국가	정책	의료비 부담 비율 (%)	일인당 평균 병원 방문 횟수	일인당 평균 본인 부담금 (단위: 원)	평균 사망률 (%)	사회전체 의료비 (단위: 조원)
A	가	35	10.1	35,350	3.3	6.1
	나	10	14.1	14,100	3.1	8.4
B	가	34	9.8	33,320	3.4	5.8
	나	11	9.9	10,890	3.2	6.1

※ 1. 의료비 부담 비율(%): 전체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1) 자료해석 (두괄식 자료해석의 결과제시 + 구체적 수치로써 근거대기)

국가 B의 국민들은 사회 전체 의료비를 생각하여, 정책에 따른 의료비 부담 비율과 상관없이 행동하지만, 국가 A의 국민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정책에 따른 의료비 부담 비율의 변화에 따라 행동을 바뀌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국가 A는 의료비 부담 비율이 35%에 달하는 정책 “가”의 경우 평균 병원 방문횟수가 10.1에 불과하지만, 의료비 부담 비율이 10%인 정책 “나”의 경우 14.1회로 병원 방문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망률이 정책 “가”에 비해 0.2%줄어드나 이는 정책 “가”에 비해 2.3조 원 가량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에 부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국가 B는 의료비 부담 비율이 34%인 정책 “가”의 경우나 의료비 부담 비율이 11%인 정책 “나”의 경우나 평균 병원 방문횟수는 9.8, 9.8로 거의 동일하기에 정책 “나”로의 변화는 사회적 비용을 0.3조 원만을 투자하여 사망률을 0.2% 줄일 수 있기에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2) 이전 논의에 자료해석형 문제를 연결시키기

이러한 <자료>는 [문제 1]의 집단주의와 연결되는데, 개인주의적 성향을 띄는 A국가의 국민들이 집단주의적 성향을 띄는 B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정책의 효용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출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국가 A의 국민들은 사망률과는 상관없이 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사회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B국가의 국민들은 사회전체를(사회 전체 의료비) 생각해서 정책 “나”의 상황에서도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 의료비도 줄인다. 이는 국가 A의 개인들이 이익 또는 권리만을 주장하고,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기에 집단주의로써 개인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답안작성

1문단 국가 B의 국민들은 사회 전체 의료비를 생각하여, 정책에 따른 의료비 부담 비율과 상관없이 행동하지만, 국가 A의 국민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정책에 따른 의료비 부담 비율의 변화에 따라 행동을 바뀌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국가 A는 의료비 부담 비율이 35%에 달하는 정책 “가”의 경우 평균 병원 방문횟수가 10.1에 불과하지만, 의료비 부담 비율이 10%인 정책 “나”의 경우 14.1회로 병원 방문횟수가 늘어나고 사망률이 정책 “가”에 비해 0.2% 줄어드나 이는 정책 “가”에 비해 2.3조 원 가량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에 부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국가 B는 의료비 부담 비율이 34%인 정책 “가”의

	<p>경우나 의료비 부담 비율이 11%인 정책 “나”의 경우나 평균 병원 방문횟수는 9.8로 동일하기에 정책 “나”로의 변화는 사회적 비용을 0.3조 원만을 투자하여 사망률을 0.2% 줄일 수 있기에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p>
2문단	<p>이러한 <자료>는 [문제 1]의 집단주의와 연결되는데,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는 A 국가의 국민들이 집단주의적 성향을 띠는 B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정책의 효용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출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국가 A의 국민들은 사망률과는 상관없이 하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사회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B 국가의 국민들은 사회전체를(사회 전체 의료비) 생각해서 정책 “나”의 상황에서도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 의료비도 줄인다. 이는 국가 A의 개인들이 이익 또는 권리만을 주장하고,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기에 집단주의로써 개인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p>

[문제 4]	일부 대기업들이 개인의 성과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보수를 개인 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pay-for-performance)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 제도가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 1]에 제시된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성과급 제도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25점)
<답안 1 - 개인 간 차등 성과급에 대한 찬성 견해>	
<p>나는 개인 성과급 제도의 확산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청년층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기에 개인의 목표달성, 경쟁과 성과/성취에 따라 차별적 보상을 하는 것이 이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성과-보수를 연계하여, 개인 간 성과 경쟁을 자극하면 자연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창의성이 중요시 되는 시대에 개인의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공정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근속년수에 따른 차별적 지급이 아닌 개인의 성과에 따른 지급 방식을 통해 보수의 개인 간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p> <p>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개인주의적 문화 못지않게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제도에 대한 적합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로부터 유교사상이 사회 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에 개인적 성과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p> <p>따라서 개인 성과급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한국 사회 내에서의 적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유형과 연계한 성과급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성과급의 근거를 이원화하여 개인의 성과와 부서/기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고에 기반을 두면 기본급+성과급, 특별 성과급, 기관 이윤 극대화 수준에 적합한 개인 성과급 제도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p>	
<답안 2 - 개인 간 차등 성과급에 대한 반대 견해>	
<p>나는 개인 성과급 제도의 확산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는 집단을 중시하는 유교문화가 오래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고, 군사독재시절을 거치며 집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개인주의적 성향을 띄는 개인 성과급 제도는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팀워크를 해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개인의 성과나 성공보다 집단의 공동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노력, 조화,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성과급 제도의 확산은 지나친 개인 간 성과 경쟁으로 집단 협력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 성과급 제도의 확산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통해 기업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조는 오히려 창의성을 해칠 수 있다. 개인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는 구조 하에서는 개인들은 이해타산적으로 안전한 사업이나 과제에 치중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p>	

The 논술	2016 성균관대 인문 2교시
--------	------------------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25점)
--------	---

<제시문 1>

모든 사회에는 자연과학의 대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는 사회적 사실들이 있다. 이를테면 개인이 형제, 배우자, 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때 그 개인이나 그의 행동과 별도로 실제로 존재하는 법과 관습 등에 의해 규정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무는 개인의 정서에 맞거나 개인의 내면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이다. 자신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자신의 밖에 있는 그것을 따르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상징체계, 빛을 내거나 갠기 위한 금융 체계, 상업적인 관계를 위한 신용도구,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행 등 사회적인 것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기능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와 사고는 개인 외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요되거나 강제되기도 한다.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에 동의할 때조차도 그 강제적인 힘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사실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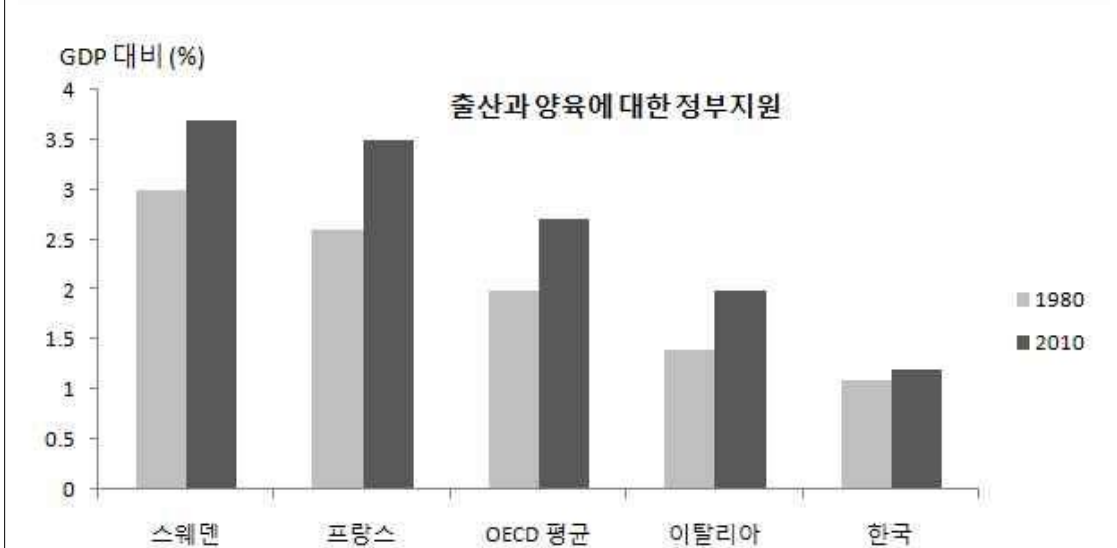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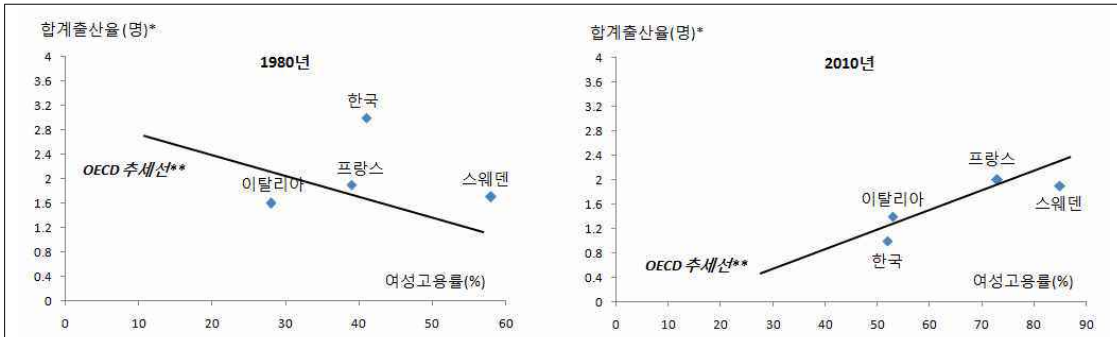
<제시문 2>

한 개인과 그 개인의 행위를 최소한의 단위인 '원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는 행위 외의 모든 것은, '의미와는 무관한' 자연의 사건처럼, 유의미한 행위의 조건 내지 이 행위의 관련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에 불과하다. 개인은 유의미한 행위의 주체이며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의식은 개인적인 것이다. 베버는 집합의식을 가설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합의식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목적과 관련된 수단의 검토, 이 목적의 선택, 결과의 예측, 결정 그리고 실행의 결단을 포함하여 의미 관계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모두가 개인의 의지에 속한다.

<제시문 3>

분명한 것은,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사람은 본성적으로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없는 사람은 보잘 것 없는 존재이거나 사람을 넘어선 존재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이 시간상으로는 국가에 앞서지만, 논리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이나 가족에 앞선다.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앞서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란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에 앞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두 명제의 증거는, 국가는 전체며 개인은 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개인은 고립되어서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으므로 전체 국가에 모두 같이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만이 스스로 만족한 상태를 이룰 수 있다. 타인과 더불어 정치적 공동체의 혜택을 누릴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해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개인은 국가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동체, 즉 전체의 일부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를 이루려는 잠재적인 충동이 있다. 사람은 완성되었을 때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지만,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나쁜 동물로 전락하고 만다.

<제시문 4>				
<p>로크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적 사회의 구속을 당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과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각각 자기네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의 침해에 대해 보다 공고한 안정성을 보장 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생명·자유·재산 등의 자연권은 지배자에게 줄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 개인들이 정부에 권력을 일부 신탁하였다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의 위임에 반하는 정부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즉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만든 것이며 그 목적에 반할 때에는 국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p>				
<제시문 5>				
<p>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물 유기체와 매우 유사하므로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하려면 생물 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발전의 논리를 사회의 발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물 유기체의 각 기관은 생존을 위해 존재하며, 생물 유기체의 소멸은 각 기관, 혹은 부분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사회를 위해 존재하며,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 사회와 유기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사회는 성장하고 확대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이다. 둘째, 사회의 크기가 커지면서 사회는 복잡해지고 점점 분화되는 경향을 띤다. 셋째, 구조가 분화되면서 기능도 더욱 세분화된다. 넷째, 각 부분은 상호의존적이다.</p>				
[문제 2]	<p><자료 1>은 한 채용기관의 면접관과 지원자의 출신학교별 조합에 따른 채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 1]의 한 입장과 연관지어 어떤 채용 패턴이 있는지 밝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다른 한 입장을 비판하시오.(25점)</p>			
<자료 1>				
면접관 출신학교		지원자 출신 학교		
		A 대학	B 대학	C 대학
A대학	지원자 수 채용자 수	100 17	100 14	100 13
B대학	지원자 수 채용자 수	100 12	100 18	100 11
C대학	지원자 수 채용자 수	100 13	100 9	100 16
* 면접관과 지원자의 자격과 능력 및 출신대학의 수준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				
[문제 3]	<p><자료 2>를 해석하여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문제 1]의 한 입장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30점)</p>			
<자료 2>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OECD 추세선: OECD 국가 전체의 추세

[문제 4]	[문제 1]의 한 입장을 근거로 <보기>에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성 견해를 논술하고, 또 다른 입장을 근거로 그 정책에 대한 반대 견해를 논술하시오. (20점)
--------	--

<보기>

최근 정부는 00지역에 위락 시설을 갖춘, 제 2의 한류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류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동시에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예정지가 대부분 국유지이긴 하나 일부 지역은 몇몇 개인의 사유지라는 점이였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수용제도'를 활용하여 그들이 소유하던 땅을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보상액을 주고 수용하였다. 그러자 K씨를 비롯한 토지소유주들은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 토지수용제도: 국가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 토지가 필요할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

풀이	2016 성균관대 인문 2교시
----	------------------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25점)	
1) 기준설정		
기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	
2)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사회실재론	VS	사회명목론
<제시문 1>		
<p>모든 사회에는 자연과학의 대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는 사회적 사실들이 있다. 이를테면 개인이 형제, 배우자, 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때 그 개인이나 그의 행동과 별도로 실제로 존재하는 법과 관습 등에 의해 규정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무는 개인의 정서에 맞거나 개인의 내면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이다. 자신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자신의 밖에 있는 그것을 따르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상징체계, 빚을 내거나 갚기 위한 금융 체계, 상업적인 관계를 위한 신용도구,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행 등 사회적인 것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기능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와 사고는 개인 외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요되거나 강제되기도 한다.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에 동의할 때조차도 그 강제적인 힘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사실의 본질적인 특징이다.</p>		
관점 분류	사회실재론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1>에 의하면 사회적 사실은 개인 외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로, 개인에게 강요되거나 강제 된다.</p>	
<제시문 2>		
<p>한 개인과 그 개인의 행위를 최소한의 단위인 '원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는 행위 외의 모든 것은, '의미와는 무관한' 자연의 사건처럼, 유의미한 행위의 조건 내지 이 행위의 관련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에 불과하다. 개인은 유의미한 행위의 주체이며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의식은 개인적인 것이다. 베버는 집합의식을 가설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합의식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목적과 관련된 수단의 검토, 이 목적의 선택, 결과의 예측, 결정 그리고 실행의 결단을 포함하여 의미관계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모두가 개인의 의지에 속한다.</p>		
관점 분류	사회명목론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2>는 유의미한 행위의 주체는 오직 개인뿐이며, 유의미한 의식 또한 개인적인 것이고, 집합의식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p>	
<제시문 3>		
<p>분명한 것은,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사람은 본성적으로 국가에서</p>		

살아야 하는 동물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없는 사람은 보잘 것 없는 존재이거나 사람을 넘어선 존재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이 시간상으로는 국가에 앞서지만, 논리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이나 가족에 앞선다.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앞서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란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에 앞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두 명제의 증거는, 국가는 전체며 개인은 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개인은 고립되어서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으므로 전체 국가에 모두 같이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만이 스스로 만족한 상태를 이룰 수 있다. 타인과 더불어 정치적 공동체의 혜택을 누릴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해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개인은 국가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동체, 즉 전체의 일부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를 이루려는 잠재적인 충동이 있다. 사람은 완성되었을 때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지만,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나쁜 동물로 전락하고 만다.	
관점 분류	사회실재론
한 문장 요약	<제시문 3>은 국가는 개인에 앞서서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로 국가는 전체이며, 개인은 그 부분이라고 말한다.
<제시문 4>	
로크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적 사회의 구속을 당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과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각각 자기네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의 침해에 대해 보다 공고한 안정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생명·자유·재산 등의 자연권은 지배자에게 줄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 개인들이 정부에 권력을 일부 신탁하였다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의 위임에 반하는 정부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즉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만든 것이며 그 목적에 반할 때에는 국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점 분류	사회명목론
한 문장 요약	<제시문 4>는 생명, 자유, 재산 등은 지배자에게 줄 수 없는 자연권이라고 말하며, 국가는 이러한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제시문 5>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물 유기체와 매우 유사하므로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하려면 생물 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발전의 논리를 사회의 발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물 유기체의 각 기관은 생존을 위해 존재하며, 생물 유기체의 소멸은 각 기관, 혹은 부분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사회를 위해 존재하며,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 사회와 유기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사회는 성장하고 확대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이다. 둘째, 사회의 크기가 커지면서 사회는 복잡해지고 점점 분화되는 경향을 띤다. 셋째, 구조가 분화되면서 기능도 더욱 세분화된다. 넷째, 각 부분은 상호의존적이다.	
관점 분류	사회실재론
한 문장 요약	<제시문 5>는 사회는 생물 유기체와 유사한 것으로, 개인은 생명체를 위해 존재하는 각 기관처럼 사회를 위해 존재하며,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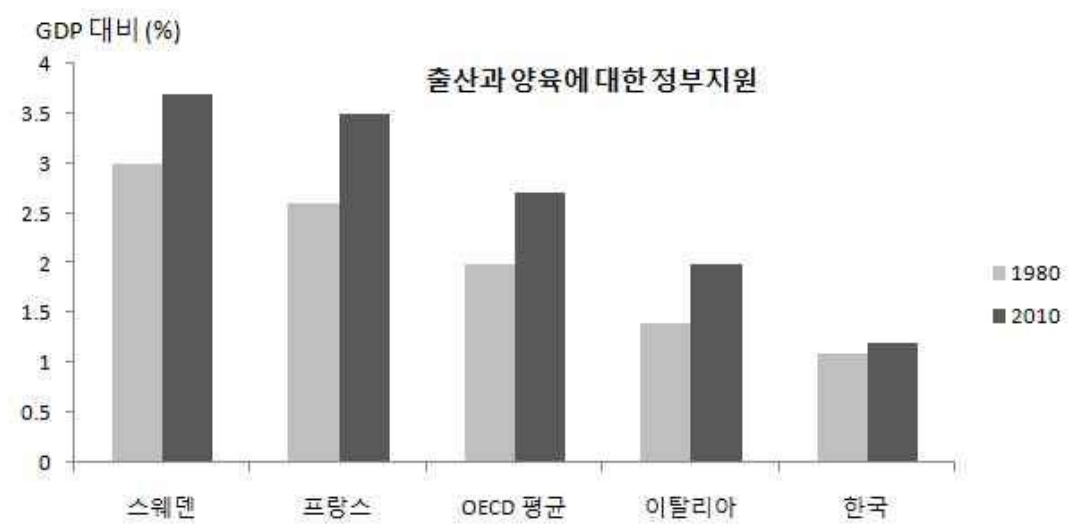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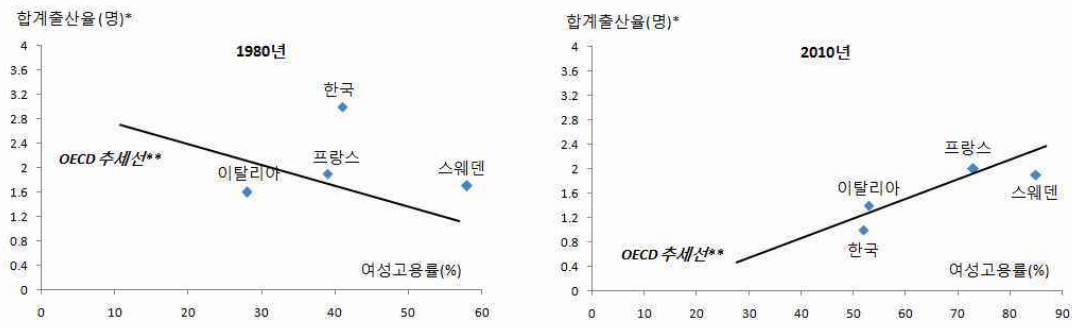
		는 존재가 된다고 말한다.
3)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제시문 1>~<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을 기준으로 크게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2문단	②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5>는 '사회실재론'을 지지하는 글로서, 사회가 개인과 무관한 독립적 실재로서 존재한다고 말한다.
	③	<제시문 1>에 의하면 사회적 사실은 개인 외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로, 개인에게 강요되거나 강제 된다.
	④	<제시문 3>은 국가는 개인에 앞서서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로 국가는 전체이며, 개인은 그 부분이라고 말한다.
	⑤	<제시문 5>는 사회는 생물 유기체와 유사한 것으로, 개인은 생명체를 위해 존재하는 각 기관처럼 사회를 위해 존재하며,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한다.
3문단	⑥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사회명목론'을 지지하는 글로서, 사회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로서, 개인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⑦	<제시문 2>는 유의미한 행위의 주체는 오직 개인뿐이며, 유의미한 의식 또한 개인적인 것이고, 집합의식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⑧	<제시문 4>는 생명, 자유, 재산 등은 지배자에게 줄 수 없는 자연권이라고 말하며, 국가는 이러한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문제 2]	<자료 1>은 한 채용기관의 면접관과 지원자의 출신학교별 조합에 따른 채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 1]의 한 입장과 관련하여 어떤 채용 패턴이 있는지 밝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다른 한 입장을 비판하시오.(25점)			
<자료 1>				
면접관 출신학교		지원자 출신 학교		
		A 대학	B 대학	C 대학
A대학	지원자 수	100	100	100
	채용자 수	17	14	13
B대학	지원자 수	100	100	100
	채용자 수	12	18	11
C대학	지원자 수	100	100	100
	채용자 수	13	9	16
* 면접관과 지원자의 자격과 능력 및 출신대학의 수준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				
1) 자료해석 (두괄식 자료해석의 결과제시 + 구체적 수치로써 근거대기)				
<자료 1>의 해석을 통해 면접관과 지원자의 출신학교가 동일할 때 채용자 수(채용률)가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채용패턴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면접관/지원자의 능력, 출신 대학 수준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므로 학연으로 나타난 사회의 연줄구조가 개인의 판단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면접관 출신학교가 A일 때 같은 대학 지원자 채용률이 17%, 14%, 13%를 기록한 타 학교 지원자 채용률에 비해 높았다. 다음으로 면접관 출신학교가 B일 때 같은 대학 지원자 채용률이 18%, 14%, 11%를 기록한 타 학교 지원자 채용률에 비해 높았다. 마지막으로, 면접관 출신학교가 C일 때 같은 대학 지원자 채용률이 16%로 15%, 9%를 기록한 타 학교 지원자 채용률에 비해 높았다.				
2) 이전 논의에 자료해석형 문제를 연결시키기				
[문제 1] 두 입장 정리	<제시문 1>~<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을 기준으로 크게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5>는 ‘사회실재론’을 지지하는 글로서, 사회가 개인과 무관한 독립적 실재로서 존재한다고 말한다.			
	<제시문 1>에 의하면 사회적 사실은 개인 외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로, 개인에게 강요되거나 강제 된다.			
	<제시문 3>은 국가는 개인에 앞서서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로 국가는 전체이며, 개인은 그 부분이라고 말한다.			
	<제시문 5>는 사회는 생물 유기체와 유사한 것으로, 개인은 생명체를 위해 존재하는 각 기관처럼 사회를 위해 존재하며,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한다.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사회명목론’을 지지하는 글로서, 사회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로서, 개인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제시문 2>는 유의미한 행위의 주체는 오직 개인뿐이며, 유의미한 의식 또				

	<p>한 개인적인 것이고, 집합의식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p> <p><제시문 4>는 생명, 자유, 재산 등은 지배자에게 줄 수 없는 자연권이라고 말하며, 국가는 이러한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p>
<p>이러한 해석결과는 사회적 구조는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므로 사회실재론과 연결되며, 사회명목론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회명목론’은 사회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로서, 개인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지만, <자료 1>의 해석결과는 이와 정반대로 학연으로 나타난 사회의 연줄 구조가 개인의 지원자에 대한 채용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p>	
<p>3) 답안작성</p>	
1문단	<p><자료 1>의 해석을 통해 면접관과 지원자의 출신학교가 동일할 때 채용자 수(채용률)가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채용패턴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면접관/지원자의 능력, 출신대학 수준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므로 학연으로 나타난 사회의 연줄구조가 개인의 판단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면접관 출신학교가 A일 때 같은 대학 지원자 채용률이 17%로, 14%, 13%를 기록한 타 학교 지원자 채용률에 비해 높았다. 다음으로 면접관 출신학교가 B일 때 같은 대학 지원자 채용률이 18%로, 14%, 11%를 기록한 타 학교 지원자 채용률에 비해 높았다. 마지막으로, 면접관 출신학교가 C일 때 같은 대학 지원자 채용률이 16%로 13%, 9%를 기록한 타 학교 지원자 채용률에 비해 높았다.</p>
2문단	<p>이러한 해석결과는 사회적 구조는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므로 사회실재론과 연결되며, 사회명목론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회명목론’은 사회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로서, 개인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지만, <자료 1>의 해석결과는 이와 정반대로 학연으로 나타난 사회의 연줄 구조가 개인의 지원자에 대한 채용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p>

[문제 3]	<자료 2>를 해석하여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문제 1]의 한 입장과 연관지어 설명하십시오.(30점)
--------	---

<자료 2>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OECD 추세선: OECD 국가 전체의 추세

1) 자료해석 (두괄식 자료해석의 결과제시 + 구체적 수치로써 근거대기)
<자료 2>를 통해 OECD 국가들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은 1980년 음(-)의 관계였지만 2010년 양(+)의 관계로 변화하였으나, 한국은 여성고용률이 증가하자 합계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1980~2010년까지의 여성 고용률이 약 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변화는 거의 없지만 이에 반해 한국은 약 10% 정도의 여성고용률 증가에 비해 출산율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OECD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1980년에 비해 2010년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지만 한국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거의 차이가 없었던 점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전 논의에 자료해석형 문제를 연결시키기
이는 사회실재론적 관점과 연결되는데, 출산·양육의 문제가 개인적 행동이나 결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제도와 구조 차원에서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

부의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출산과 양육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3) 답안작성	
1문단	<p><자료 2>를 통해 OECD 국가들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은 1980년 음(-)의 관계였지만 2010년 양(+)의 관계로 변화하였으나, 한국은 여성고용률이 증가하자 합계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1980~2010년까지의 여성 고용률이 약 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변화는 거의 없지만 이에 반해 한국은 약 10% 정도의 여성고용률 증가에 비해 출산율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OECD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1980년에 비해 2010년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지만 한국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거의 차이가 없었던 점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p>
2문단	<p>이는 사회실재론적 관점과 연결되는데, 출산·양육의 문제가 개인적 행동이나 결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제도와 구조 차원에서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출산과 양육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p>

[문제 4]	[문제 1]의 한 입장을 근거로 <보기>에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성 견해를 논술하고, 또 다른 입장을 근거로 그 정책에 대한 반대 견해를 논술하시오.(20점)
<보기>	
<p>최근 정부는 00지역에 위락 시설을 갖춘, 제 2의 한류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류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동시에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예정지가 대부분 국유지이긴 하나 일부 지역은 몇몇 개인의 사유지라는 점이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수용제도’를 활용하여 그들이 소유하던 땅을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보상액을 주고 수용하였다. 그러자 K씨를 비롯한 토지소유주들은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p> <p>* 토지수용제도: 국가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 토지가 필요할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p>	
<답안>	
<p>정부의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찬성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과 제도 등은 사회(혹은 집단이나 공동체)가 실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한류테마공원을 통해 겨울연가, 강남스타일, 태양의 후예 등 큰 성공을 가져온 한류콘텐츠를 관광업과 접목하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자리 잡게 될 수 있고,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이익형량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토지수용 간의 이익과 불이익을 판단컨대, 한류테마공원을 위한 토지수용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재하는 사회의 공익은 개인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것에 해당한다. 셋째, 법치주의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은 그 사회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법의 적용에 동의하고, 법은 이로부터 정당성을 얻는다. 정당성에 근거한 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p>	
<p>정부의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반대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나 집단 결성의 근본적 목표는 개인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소유권의 절대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법에 의한 적용이기 때문이다. 셋째, 보상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적 목표를 위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떠나 수용에 따른 보상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넷째,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된다는 식의 군사독재 시절의 논리가 적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가가 사인과 적절한 협상을 거칠 필요 없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편법수단이기 때문이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토지수용을 해버리면 그만이니 정부로서는 협상단계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p>	

The 논술	2016 성균관대 인문 3교시
--------	------------------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25점)
<제시문 1>	
<p>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자의 업적을 평가해 지지를 표시하거나 다른 정책결정자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의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단순 다수제이다. 단순 다수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하여 시행된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이 큰 주요 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요 정당 후보가 의회의 다수를 확보하게 되어 권력이 집중된다. 이렇게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정권을 차지한 경우, 시민은 정책집행의 결과가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평가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그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제시문 2>	
<p>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생활양식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서로 다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견해 차이를 드러내어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공존의 지혜를 얻기도 한다. 갈등이 생길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소수의 의견이 계속해서 무시되면 대립과 갈등의 수준은 극대화될 수 있다.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지뿐 아니라 소수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참여하는 합리적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여타의 물리적 힘이나 다른 강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개인이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실천은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p>	
<제시문 3>	
<p>대의 민주제는 국가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국민이 직접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인 비례 대표제는 한 사회 내 모든 하위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대리자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광장에 모으는데 적합한 선거제도이다. 비례 대표제는 총 유효 투표의 정당 득표 비율에 비례해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의회의 대표성을 높여주며 소수 정당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다양한 대리자는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한다. 이처럼 비례 대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책결정 과정에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표 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p>	
<제시문 4>	
<p>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회의론에 대</p>	

해 토드 부크홀츠는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political invisible hand)’이 존재하므로 정치인의 개인적 동기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인은 다수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려 한다. 유권자도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잘 반영할 가능성과 더불어 당선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 후보자가 승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투표는 무의미한 것이 되며 자신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다른 유권자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한다. 이처럼 정치가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가 바라는 것을 제시하고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 승리하길 바란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유권자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 결과 다수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공공선으로 실현된다.

<제시문 5>

비례 대표제에서는 소규모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극단적인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도 쉽게 의석을 점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소수 정당이 많은 상황에서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연립정부를 조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혹은 연립정부 구성 자체가 어려워 소수당 정부를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연립정부나 소수당 정부에서는 특정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다양한 정당 간의 지루한 협상이 계속된다. 그 결과 정당 간의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한 어느 누구도 실제로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 혼합정책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반면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면 안정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

[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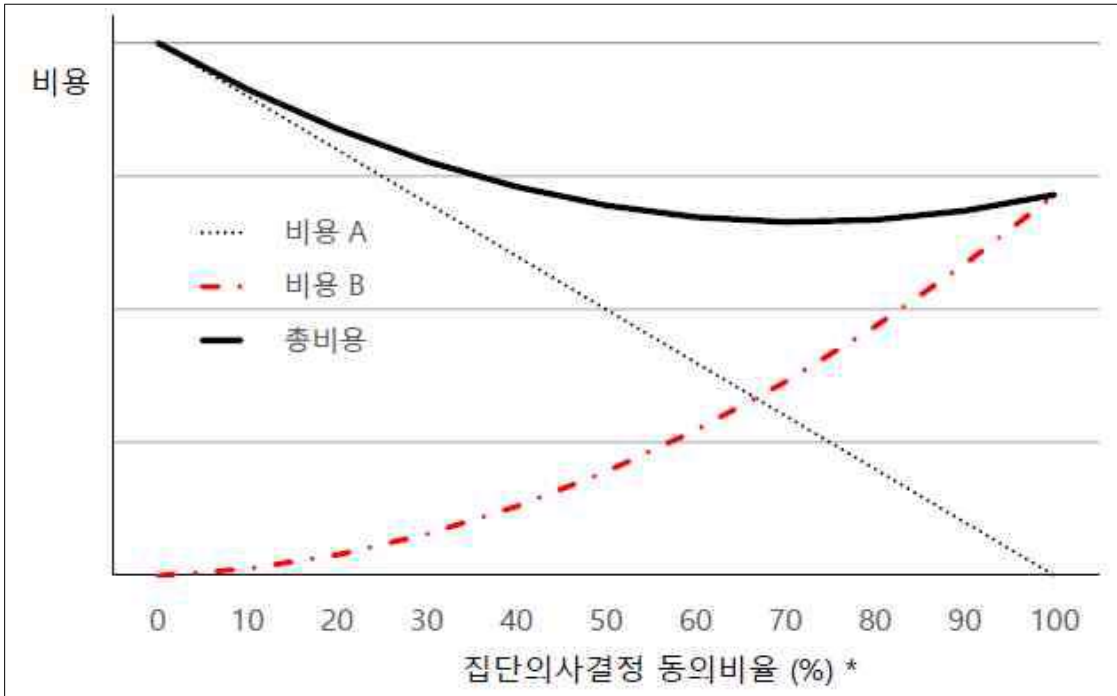
<보기>는 유권자 선호 분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이론의 설명을 담고 있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비판하시오.(25점)

<보기>

양당제 하의 다수결 방식에서는 유권자 선호 분포에서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유권자인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 대안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택된다는 이론이 있다. 정부 지출 규모에 대한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이 존재하고, 정책 대안에 대한 유권자 100명의 선호가 <그림>처럼 분포한다고 가정하자. <그림>에서 (i)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은 100억 달러이고, (ii) 전체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의 평균값은 90억 달러이며, (iii)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은 150억 달러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인 100억 달러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당이 선택된다.

<그림>

<p>유권자수 (명)</p> <table border="1"> <caption>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억 달러)에 따른 유권자수 (명)</caption> <thead> <tr> <th>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억 달러)</th> <th>유권자수 (명)</th> </tr> </thead> <tbody> <tr> <td>0</td> <td>25</td> </tr> <tr> <td>50</td> <td>15</td> </tr> <tr> <td>100</td> <td>20</td> </tr> <tr> <td>150</td> <td>35</td> </tr> <tr> <td>200</td> <td>5</td> </tr> </tbody> </table> <p>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억 달러)</p>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억 달러)	유권자수 (명)	0	25	50	15	100	20	150	35	200	5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억 달러)	유권자수 (명)												
0	25												
50	15												
100	20												
150	35												
200	5												
[문제 3]	<p><보기>를 참고하여 <사례 1>과 <사례 2>를 비교 설명하고, 각각의 사례를 이용하여 [문제 1]의 <제시문 2>의 견해를 지지 또는 반박하시오.(25점)</p>												
<p><보기></p> <p>집단의사를 구성원의 투표로 결정하는 의견수렴 방식은 의사결정의 결과로 인해 두 가지 비용, 즉 자신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비용 A)과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요구되는 비용(비용 B)을 초래한다. 사회구성원은 총비용(=비용 A+비용 B)을 최소화시키는 집단의사결정 동의비율이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점에 합의한다고 가정하자.</p>													
<p><사례 1></p>													



<사례 2>

집단의사결정 동의비율(%)*	비용 A	비용 B	총비용
0	260	0	260
20	224	20	244
40	198	45	243
60	149	110	259
80	86	205	291
100	0	330	330

집단의사결정 동의비율: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동의비율로 만장일치제도에서는 100%임

[문제 4]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활용하여, <보기>의 법률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만 선택하여 논술하시오.(25점)
--------	--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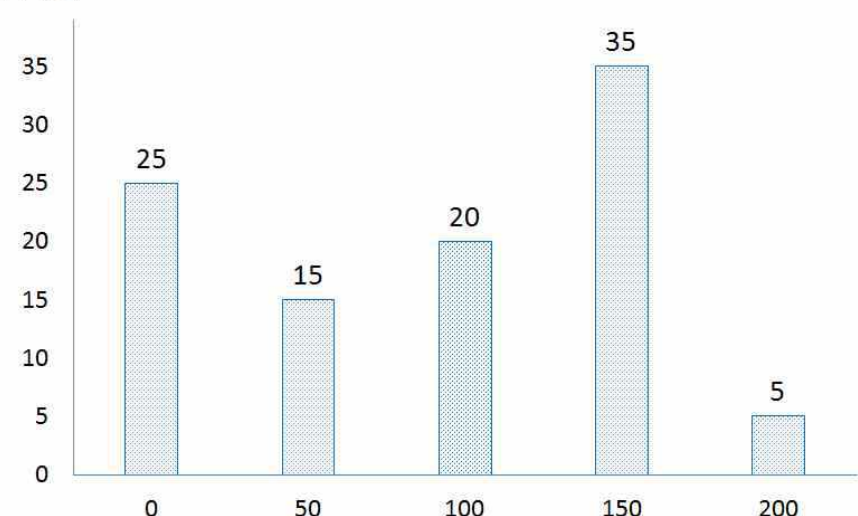
A국 의회는 법안 통과를 놓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몸싸움 같은 물리적 충돌을 빚거나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로 의회가 파행적 운영으로 가는 사태를 자주 겪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해 소수가 무시되는 상황을 막고자 이전처럼 과반수 동의만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풀이	2016 성균관대 인문 3교시
----	------------------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25점)	
1) 기준설정		
기준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두 가지 방식	
2)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단순 다수제	VS	비례 대표제
<제시문 1>		
<p>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자의 업적을 평가해 지지를 표시하거나 다른 정책결정자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의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단순 다수제이다. 단순 다수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하여 실행된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이 큰 주요 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요 정당 후보가 의회의 다수를 확보하게 되어 권력이 집중된다. 이렇게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정권을 차지한 경우, 시민은 정책집행의 결과가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평가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그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관점 분류	단순 다수제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1>은 단순 다수제는 한 정당이 다수 의석 점유할 수 있으므로 선출직 대표자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p>	
<제시문 2>		
<p>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생활양식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서로 다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견해 차이를 드러내어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공존의 지혜를 얻기도 한다. 갈등이 생길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소수의 의견이 계속해서 무시되면 대립과 갈등의 수준은 극대화될 수 있다.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지뿐 아니라 소수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참여하는 합리적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여타의 물리적 힘이나 다른 강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개인이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실천은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p>		
관점 분류	비례 대표제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2>는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소수의 동의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므로 협상과 타협, 관용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며 비례 대표제를 지지한다.</p>	

<제시문 3>	
<p>대의 민주제는 국가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국민이 직접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인 비례 대표제는 한 사회 내 모든 하위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대리자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광장에 모으는데 적합한 선거제도이다. 비례 대표제는 총 유효 투표의 정당 득표 비율에 비례해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의회의 대표성을 높여주며 소수 정당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다양한 대리자는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한다. 이처럼 비례 대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책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표 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p>	
관점 분류	비례 대표제
한 문장 요약	<제시문 3>은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정책결정에 잘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이 높은 제도라고 말한다.
<제시문 4>	
<p>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회의론에 대해 토드 부크홀츠는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political invisible hand)’이 존재하므로 정치인의 개인적 동기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인은 다수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려 한다. 유권자도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잘 반영할 가능성과 더불어 당선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 후보자가 승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투표는 무의미한 것이 되며 자신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다른 유권자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한다. 이처럼 정치가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가 바라는 것을 제시하고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 승리하길 바란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유권자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 결과 다수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공공선으로 실현된다.</p>	
관점 분류	단순 대표제
한 문장 요약	<제시문 4>는 다수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의 의지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유권자의 선택이 만나면 그 결과 다수 유권자의 뜻이 공공선으로 실현된다고 말하며 단순 대표제를 지지한다.
<제시문 5>	
<p>비례 대표제에서는 소규모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극단적인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도 쉽게 의석을 점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소수 정당이 많은 상황에서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연립정부를 조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혹은 연립정부 구성 자체가 어려워 소수당 정부를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연립정부나 소수당 정부에서는 특정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다양한 정당 간의 지루한 협상이 계속된다. 그 결과 정당 간의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한 어느 누구도 실제로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혼합정책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반면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면 안정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p>	

관점 분류		단순 대표제
한 문장 요약		<제시문 5>는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난립함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단순 다수제를 지지한다.
3)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제시문 1>~<제시문 5>는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단순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로 분류할 수 있다.
2문단	②	<제시문 1>, <제시문 4>, <제시문 5>는 '단순 대표제'를 지지하는 글로서, 단순대표제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유권자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준다고 말한다.
	③	<제시문 1>은 단순 다수제는 한 정당이 다수 의석 점유할 수 있으므로 선출직 대표자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④	<제시문 4>는 다수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의 의지와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유권자의 선택이 만나면 그 결과 다수 유권자의 뜻이 공공선으로 실현된다고 말하며 단순 대표제를 지지한다.
	⑤	<제시문 5>는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난립함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단순 다수제를 지지한다.
	3문단	⑥
⑦		<제시문 2>는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소수의 동의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므로 협상과 타협, 관용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며 비례 대표제를 지지한다.
⑧		<제시문 3>은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정책결정에 잘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이 높은 제도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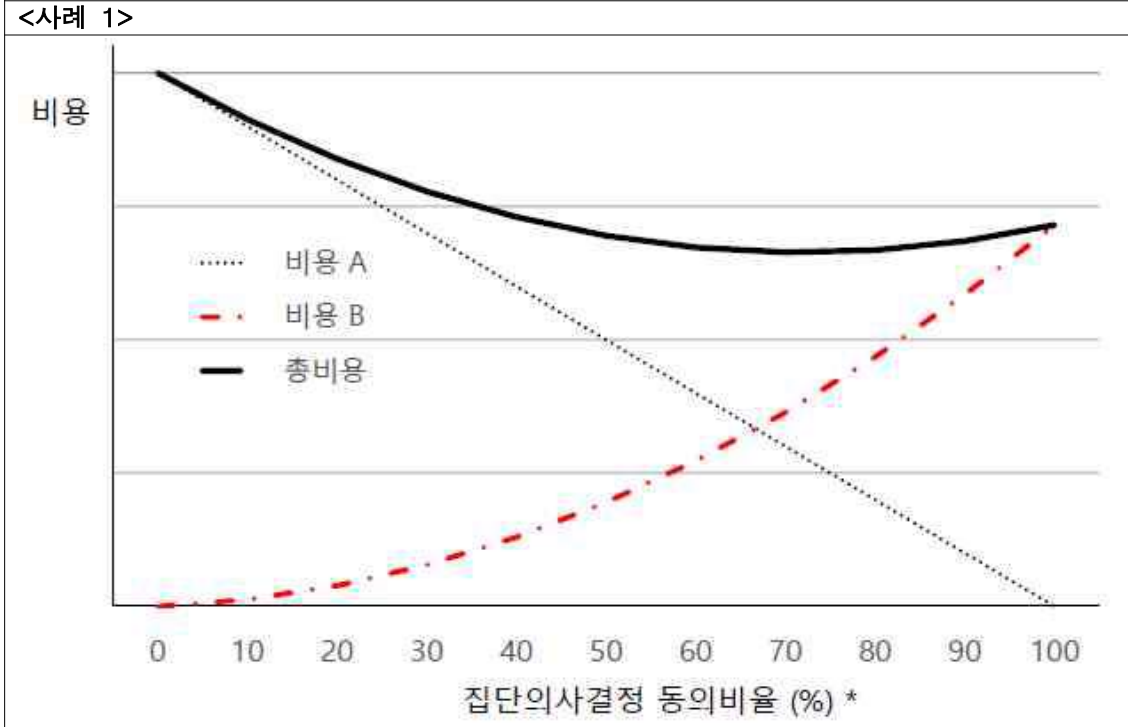
<p>[문제 2]</p>	<p><보기>는 유권자 선호 분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이론의 설명을 담고 있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비판하시오.(25점)</p>												
<p><보기></p>													
<p>양당제 하의 다수결 방식에서는 유권자 선호 분포에서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유권자인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 대안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택된다는 이론이 있다. 정부 지출 규모에 대한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이 존재하고, 정책 대안에 대한 유권자 100명의 선호가 <그림>처럼 분포한다고 가정하자. <그림>에서 (i)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은 100억 달러이고, (ii) 전체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의 평균값은 90억 달러이며, (iii)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은 150억 달러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인 100억 달러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당이 선택된다.</p>													
<p><그림></p>													
<p>유권자수 (명)</p>  <table border="1" data-bbox="335 918 1197 1433"> <thead> <tr> <th>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억 달러)</th> <th>유권자수 (명)</th> </tr> </thead> <tbody> <tr> <td>0</td> <td>25</td> </tr> <tr> <td>50</td> <td>15</td> </tr> <tr> <td>100</td> <td>20</td> </tr> <tr> <td>150</td> <td>35</td> </tr> <tr> <td>200</td> <td>5</td> </tr> </tbody> </table> <p>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억 달러)</p>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억 달러)	유권자수 (명)	0	25	50	15	100	20	150	35	200	5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억 달러)	유권자수 (명)												
0	25												
50	15												
100	20												
150	35												
200	5												
<p>1) 자료해석 (두괄식 자료해석의 결과제시 + 구체적 수치로써 근거대기)</p>													
<p>이 이론에 따르면, 양당제 하에서 단순 다수결 방식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유권자의 선호가 <그림>처럼 분포하는 가상적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의 평균값(90억 달러) 또는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부 지출금액(150억 달러)을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대안(100억달러)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p>													
<p>2) 이전 논의에 자료해석형 문제를 연결시키기</p>													
<p>[문제 1] 두 입장 정리</p>	<p><제시문 1>~<제시문 5>는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단순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로 분류할 수 있다. <제시문 1>, <제시문 4>, <제시문 5>는 '단순 대표제'를 지지하는 글로서,</p>												

	<p>단순대표제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유권자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준다고 말한다.</p> <p><제시문 1>은 단순 다수제는 한 정당이 다수 의석 점유할 수 있으므로 선출직 대표자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p> <p><제시문 4>는 다수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의 의지와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유권자의 선택이 만나면 그 결과 다수 유권자의 뜻이 공공선으로 실현된다고 말하며 단순 대표제를 지지한다.</p> <p><제시문 5>는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난립함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단순 다수제를 지지한다.</p> <p><제시문 2>와 <제시문 3>는 '비례 대표제'를 지지하는 글로서, 비례 대표제는 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합의에 이르기 위해 협상에 참여하고 타협을 도모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한다.</p> <p><제시문 2>는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소수의 동의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므로 협상과 타협, 관용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며 비례 대표제를 지지한다.</p> <p><제시문 3>은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정책결정에 잘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이 높은 제도라고 말한다.</p>
	<p>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단순 다수결 제도를 비판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이 시민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제시문 1),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다수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으며(제시문 4),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제시문 5) 점이 제시문이 주장하는 단순 다수제 또는 양당제의 장점이다. 그러나 <보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시문이 설명하는 장점이 나타나지 못하고, 전체 유권자의 선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정책으로 집행되어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 다수결 방식은 대표를 선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 <보기>처럼 유권자의 선호가 다원화된 경우, 단순 다수제는 비례 대표제와는 달리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거나(제시문 2), 다양한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지 (제시문 3) 못한다.</p>
	<p>3) 답안작성</p>
<p>1문단</p>	<p>이 이론에 따르면, 양당제 하에서 단순 다수결 방식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유권자의 선호가 <그림>처럼 분포하는 가상적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의 평균값(90억 달러) 또는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부 지출금액(150억 달러)을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대안(100억달러)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p>
<p>2문단</p>	<p>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단순 다수결 제도를 비판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이 시민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제시문 1),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다수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으며(제시문 4),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제시문 5) 점이 제시문이 주장하는 단순 다수제 또는 양당제의 장점이다. 그러나 <보기>를 통하여 알</p>

<p>수 있는 사실은 제시문이 설명하는 장점이 나타나지 못하고, 전체 유권자의 선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정책으로 집행되어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 다수결 방식은 대표를 선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 <보기>처럼 유권자의 선호가 다원화된 경우, 단순 다수제는 비례 대표제와는 달리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거나(제시문 2), 다양한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지(제시문 3) 못한다.</p>
--

[문제 3]	<보기>를 참고하여 <사례 1>과 <사례 2>를 비교 설명하고, 각각의 사례를 이용하여 [문제 1]의 <제시문 2>의 견해를 지지 또는 반박하십시오.(25점)
--------	--

<보기>
 집단 의사결정 구성원의 투표로 결정하는 의견수렴 방식은 의사결정의 결과로 인해 두 가지 비용, 즉 자신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비용 A)과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요구되는 비용(비용 B)을 초래한다. 사회구성원은 총비용(=비용 A+비용 B)을 최소화시키는 집단 의사결정 동의비율이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점에 합의한다고 가정하자.



<사례 2>

집단 의사결정 동의비율 (%)*	비용 A	비용 B	총비용
0	260	0	260
20	224	20	244
40	198	45	243
60	149	110	259
80	86	205	291
100	0	330	330

집단 의사결정 동의비율: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동의비율로 만장일치제도에서는 100%임

1) 자료해석 (두괄식 자료해석의 결과제시 + 구체적 수치로써 근거대기)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집단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동의비율이 커짐에 따라 비용 A는 감소하고 비용 B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비용의 합으로 정의되는 총비용은 집단 의사결정 동의비율이 커짐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동의비율은 <사례 1>은 70-80% 가량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례 2>는 40%로 낮게 나타나 있다.

2) 이전 논의에 자료해석형 문제를 연결시키기

<제시문 2>는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

<p>고 있다. <사례 1>의 경우 최소 총비용을 초래하는 동의비율이 단순 과반수를 초과하여 나타나 있으므로 <제시문 2>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사례 2>와 같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요구되는 비용이 매우 크거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례의 경우 추가적인 합의 또는 타협의 노력은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여 <제시문 2>의 견해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p>	
<p>3) 답안작성</p>	
1문단	<p>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집단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동의비율이 커짐에 따라 비용 A는 감소하고 비용 B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비용의 합으로 정의되는 총비용은 집단 의사결정 동의비율이 커짐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동의비율은 <사례 1>은 70-80%가량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례 2>는 40%로 낮게 나타나 있다.</p>
2문단	<p><제시문 2>는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 1>의 경우 최소 총비용을 초래하는 동의비율이 단순 과반수를 초과하여 나타나 있으므로 <제시문 2>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사례 2>와 같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요구되는 비용이 매우 크거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례의 경우 추가적인 합의 또는 타협의 노력은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여 <제시문 2>의 견해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p>

[문제 4]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활용하여, <보기>의 법률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만 선택하여 논술하시오.(25점)
<보기>	
A국 의회는 법안 통과를 놓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몸싸움 같은 물리적 충돌을 빚거나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로 의회가 파행적 운영으로 가는 사태를 자주 겪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해 소수가 무시되는 상황을 막고자 이전처럼 과반수 동의만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답안 - 찬성 측>	
의결정족수의 조건을 엄격히 하는 법률개정에 대해 찬성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의 합리적 견제가 가능하게 되어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소수의 의견 반영 정도가 더 높아지므로 대표성이 증진된다. 둘째, 정당들이 물리적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게 되어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폭력적 물리적 대립으로 인한 파행을 막아서 실제적인 입법 효율성 제고할 수 있다. 넷째, 신속 처리만이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은 아니다.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마련될수록 법안 시행 과정에서 불만이나 저항이 줄어들어 실제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답안 - 반대 측>	
의결정족수의 조건을 엄격히 하는 법률개정에 대해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당이 발목잡기를 하면 다수당이 2/3가 안될 경우 제도적 대응방안이 없어서 다수 여당의 책임성이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소수당은 강자인 다수당이 양보하지 않음을 문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수당과 소수당의 권력다툼에 정국은 정체되고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둘째, 과반을 초과하는 동의를 소수가 부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를 저지하거나 다수가 소수에 끌려 다니는 '소수 독재'를 정당화하여 정국 안정에 불리.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도 합법적 지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의회로 전략하게 되어 입법 효율성이 하락시킨다. 이는 다수당을 지지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대의 민주제에 크나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셋째, 둘째 근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는 합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킨 비효율적 법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넷째,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인 다수결의 결정 원리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과반수 의결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	

The 논술	2017 성균관대 모의
--------	--------------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안락사의 필요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	--

<제시문 1>

서양의학은 치료를 통해 환자를 단 1분이라도 더 연명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의사의 첫 번째 임무이므로 환자의 죽음은 패배로 간주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을 이런 식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주를 이루어왔다. 의사와 간호사는 치료에만 신경 쓸 뿐,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말기환자들이 겪는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어떻게 해야 덜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한다. 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살피는 교육을 받아본 일도 거의 없다. 그러나 삶의 질은 단지 ‘살아 있는 시간의 길이’라는 양적인 측면으로만 측정될 수는 없다. (...) 차가운 의료기계에 둘러싸인 채 단지 육체적으로 오래 연명하는 것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남은 인생을 덜 고통스럽게 보내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정신적으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임종환자들의 가장 큰 바람일지 모른다. 말기환자의 극단적인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가치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 삶의 마지막 과정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방식으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시문 2>

인간은 이 세상의 특수한 존재이다. 다른 식물이나 동물과 같이 단지 ‘살아있다’ 또는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구비한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 또는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방법을 택할 수 있다. 즉, 의식적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추구하고 고등한 정신활동을 영유하는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다른 사물 또는 생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존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단지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정신적, 인격적인 삶을 실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존중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다. 태어나 유아도 현 시점에서는 비록 의식이 덜 발달되어 있지만 장차 정신적, 인격적 삶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존중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가능성이 없고, 인격을 지니지 않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에 지나지 않는 육체라면 그 외형은 지녔으나 특별한 가치가 없고 존엄을 지니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즉,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이미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제시문 3>

에른스트 헤켈은 사회적 다원주의를 전파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단체인 일원주의자 동맹을 창설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이 동맹의 대다수 회원은 안락사 합법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독일뿐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까지 이르렀던 에른스트 헤켈의 노력은 종 전체의 이득이 언제나 한 개체의 이득에

앞선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헤켈은 1864년, ‘한 개인의 독립적인 존재는 재빨리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이 이 거대한 사슬의 일시적인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의 존재는 비참하고 보잘것없으며 가치 없는 것으로서, 단지 파멸을 향해 갈 뿐이다. 한 개인의 죽음은 전체를 위해 필요한 생명이 조건인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또 다른 독일의 사회적 다윈주의자 역시 1889년 ‘한 개인의 죽음은 전체를 위해 필요한 생명의 조건’이라고 썼다. 사회 전체의 복지를 한 개인의 삶보다 더 중시하는 이 같은 관점은 헤켈과 다른 독일의 다윈주의자들이 왜 우생학과 안락사법 제정을 지지했는지 설명해 준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오귀스트 포렐, 1900년 크루프상 경쟁대회 우승자 크루프 살마이어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우생학 단체인 인종 위생 단체를 결성한 알프레드 플레츠 등은 모두 죄 없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 기독교 입장에 반기를 들었다.

<제시문 4>

피임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하여 여성들이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아이를 낳거나 부양하기 힘들 정도로 아이를 낳는 것은 곧 ‘사회에 대한 죄악’이며 인간으로서 자신의 이득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모한 증식’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 개인의 생명은 ‘국가의 재산’이며 죽음이 다가올 때 개인은 이 재산의 소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는 아기를 돌보고 어린이들을 교육하며 구성원들을 보호한다. 이처럼 사회에 의해 주어지고 개발되며 보존되는 생명에 대한 보답으로,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공공의 번영에 충실하고 자기희생적이 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노쇠하여 인생이 시들기 시작할 때, 고통이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거나 우리가 고통 받는 모습을 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괴로움에 시달릴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쓸모없고 병든 자신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고통 없이 죽게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자기희생적 죽음을 기리는 월계관을 쓴 채 고귀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시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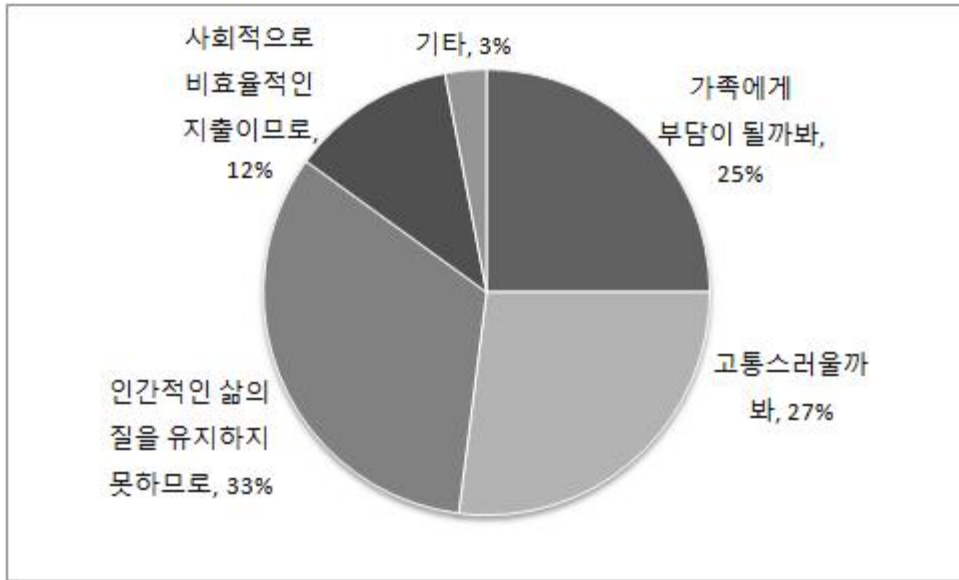
스토아 철학의 ‘삶의 방법’은 만약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신의 존귀함을 더 지켜내지 못할 정도로 침해받고 있다면, 그에게는 바로 그 ‘삶의 방법’을 수호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가르친다. (...) 세네카는 인간이 가진 선택의 자유는 최소한 언제 어떻게 삶에서 벗어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것이 삶인지 죽음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육체가 그 의무를 다했을 때, 고통 받는 영혼을 육체로부터 구해내는 것은 올바른 일일 것이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이 왔을 때 영혼을 구해낼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이 두렵다면 예정된 시간 전에 영혼을 미리 구해내야 할지도 모른다. 노년이 되더라도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단지 노년이라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년이 내 이성을 빼앗고 그것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한다면, 나에게 삶이 아니라 단지 수족의 움직임만 남는다면, 나는 힘없이 금세 부서질 그 건물에서 당장 뛰쳐나올 것이다.

[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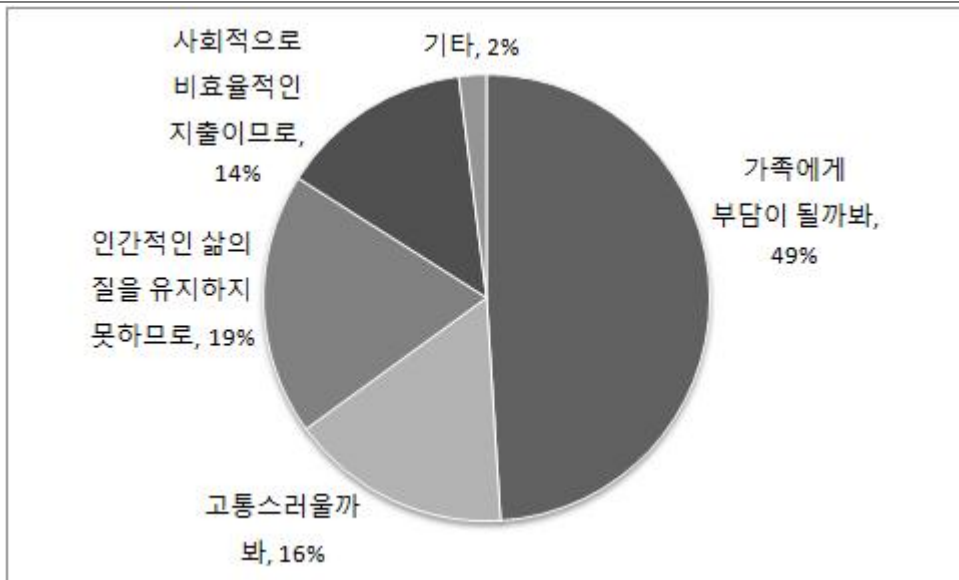
아래의 <자료1>과 <자료2>는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불치병으로 인한

생명연장치료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집단의 의식조사 결과들 각각이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이를 이용하여 <자료 3>이 보여주는 안락사에 대한 견해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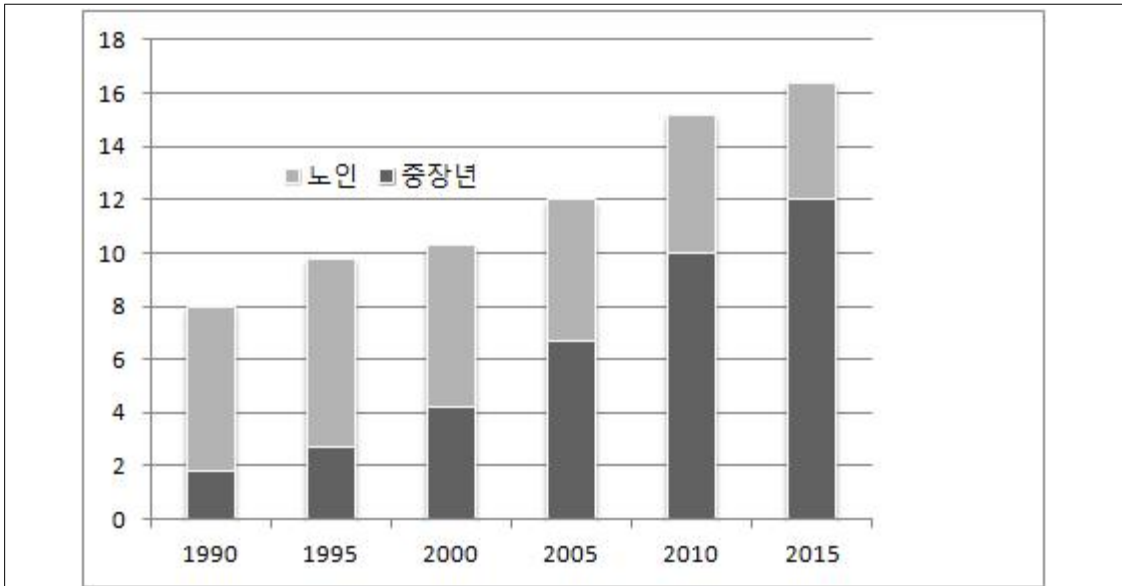
<자료1>



<자료2>



<자료3>



* 1990-2015년 기간 중 전체인구에서 중장년과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것
 * <자료1>과 <자료2>에 제시된 의식조사 결과는 1990년-2015년 기간 중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

[문제 3] 아래 <보기>의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한 입장만 취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그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40점]

<보기>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2016년도 3월부터 전국 병의원 17곳에서 실시된다.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의 경우 지금까지는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호스피스 고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부터는 말기암 환자들이 의료보험의 지원으로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의사, 간호사까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도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

풀이	2017 성균관대 모의
----	--------------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안락사의 필요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시오. [30점]	
1) 기준설정		
기준	안락사의 필요성에 관한 견해	
2)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개인주의(개체주의)	VS	공동체주의(유기체주의)
<제시문 1>		
<p>서양의학은 치료를 통해 환자를 단 1분이라도 더 연명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의사의 첫 번째 임무이므로 환자의 죽음은 패배로 간주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을 이런 식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주를 이루어왔다. 의사와 간호사는 치료에만 신경 쓸 뿐,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말기환자들이 겪는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어떻게 해야 덜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한다. 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살피는 교육을 받아본 일도 거의 없다. 그러나 삶의 질은 단지 ‘살아 있는 시간의 길이’라는 양적인 측면으로만 측정될 수는 없다. (...) 차가운 의료기계에 둘러싸인 채 단지 육체적으로 오래 연명하는 것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남은 인생을 덜 고통스럽게 보내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정신적으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임종환자들의 가장 큰 바람일지 모른다. 말기환자의 극단적인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가치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 삶의 마지막 과정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방식으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관점 분류	개인주의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1>은 말기환자의 정신적 불안과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연명에 집중하는 서양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안락사는 개인의 존엄과 삶의 가치를 존중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p>	
<제시문 2>		
<p>인간은 이 세상의 특수한 존재이다. 다른 식물이나 동물과 같이 단지 ‘살아있다’ 또는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구비한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 또는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방법을 택할 수 있다. 즉, 의식적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추구하고 고등한 정신활동을 영유하는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다른 사물 또는 생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존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단지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정신적, 인격적인 삶을 실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존중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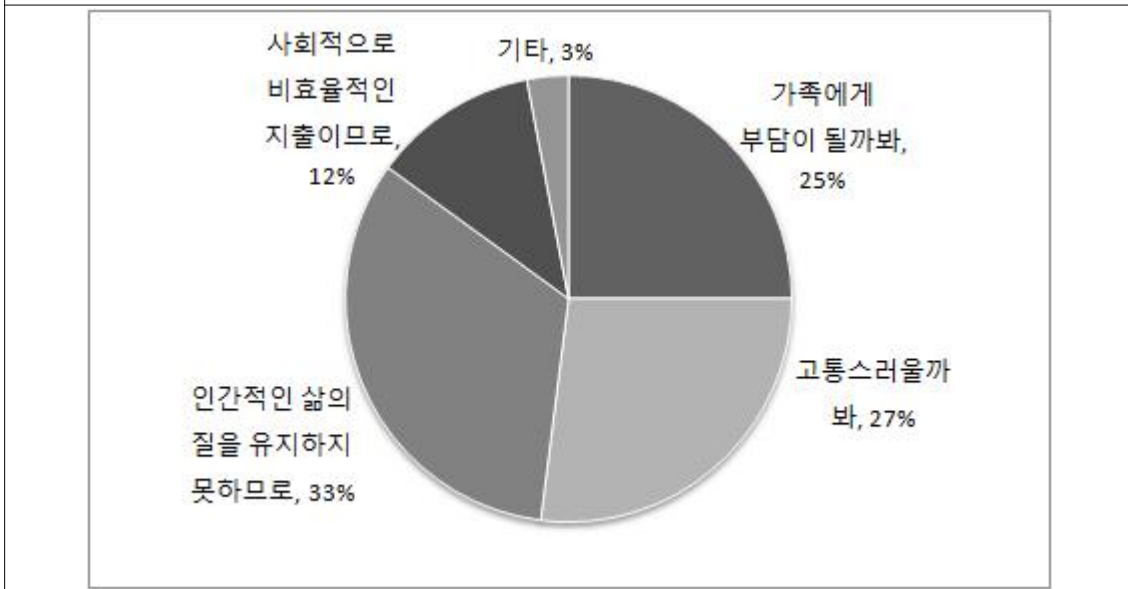
<p>다. 태어나 유아도 현 시점에서는 비록 의식이 덜 발달되어 있지만 장차 정신적, 인격적 삶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존중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가능성이 없고, 인격을 지니지 않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에 지나지 않는 육체라면 그 외형은 지녔으나 특별한 가치가 없고 존엄을 지니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즉,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이미 상실하였다는 것이다.</p>	
관점 분류	개인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2>는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통해 자율성과 주체성을 획득하여, 자신의 실존을 채워나가는 존재라고 말하며,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위해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시문 3>	
<p>에른스트 헤켈은 사회적 다윈주의를 전파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단체인 일원주의자 동맹을 창설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이 동맹의 대다수 회원은 안락사 합법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독일뿐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까지 이르렀던 에른스트 헤켈의 노력은 종 전체의 이득이 언제나 한 개체의 이득에 앞선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헤켈은 1864년, ‘한 개인의 독립적인 존재는 재빨리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이 이 거대한 사슬의 일시적인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의 존재는 비참하고 보잘것없으며 가치 없는 것으로서, 단지 파멸을 향해 갈 뿐이다. 한 개인의 죽음은 전체를 위해 필요한 생명이 조건인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또 다른 독일의 사회적 다윈주의자 역시 1889년 ‘한 개인의 죽음은 전체를 위해 필요한 생명의 조건’이라고 썼다. 사회 전체의 복지를 한 개인의 삶보다 더 중시하는 이 같은 관점은 헤켈과 다른 독일의 다윈주의자들이 왜 우생학과 안락사법 제정을 지지했는지 설명해 준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오귀스트 포렐, 1900년 크루프상 경쟁대회 우승자 크루프 살마이어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우생학 단체인 인종 위생 단체를 결성한 알프레드 플레츠 등은 모두 죄 없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 기독교 입장에 반기를 들었다.</p>	
관점 분류	공동체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3>은 사회 전체의 효율과 복지를 위해 우생학적 관점에서 안락사를 지지하는 공동체주의적 시각을 소개한다.
<제시문 4>	
<p>피임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하여 여성들이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아이를 낳거나 부양하기 힘들 정도로 아이를 낳는 것은 곧 ‘사회에 대한 죄악’이며 인간으로서 자신의 이득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모한 증식’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 개인의 생명은 ‘국가의 재산’이며 죽음이 다가올 때 개인은 이 재산의 소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는 아기를 돌보고 어린이들을 교육하며 구성원들을 보호한다. 이처럼 사회에 의해 주어지고 개발되며 보존되는 생명에 대한 보답으로,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공공의 번영에 충실하고 자기희생적이 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노쇠하여 인생이 시들기 시작할 때, 고통이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거나 우리가 고통 받는 모습을 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괴로움에 시달릴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쓸모없고 병든 자신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고통 없이 죽게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자기희생적 죽음을 기리는 월계관을 쓴 채 고귀한</p>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관점 분류	공동체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4>는 사회적 효율성을 위해 ‘피임’을 통해 개인들의 무모한 증식을 막는 것처럼 안락사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제시문 5>	
스토아 철학의 ‘삶의 방법’은 만약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신의 존귀함을 더 지켜내지 못할 정도로 침해받고 있다면, 그에게는 바로 그 ‘삶의 방법’을 수호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가르친다. (...) 세네카는 인간이 가진 선택의 자유는 최소한 언제 어떻게 삶에서 벗어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것이 삶인지 죽음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육체가 그 의무를 다했을 때, 고통 받는 영혼을 육체로부터 구해내는 것은 올바른 일일 것이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이 왔을 때 영혼을 구해낼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이 두렵다면 예정된 시간 전에 영혼을 미리 구해내야 할지도 모른다. 노년이 되더라도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단지 노년이라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년이 내 이성을 빼앗고 그것을 조금씩 갇아먹기 시작한다면, 나에게 삶이 아니라 단지 수족의 움직임만 남는다면, 나는 힘없이 금세 부서질 그 건물에서 당장 뛰쳐나올 것이다.	
관점 분류	개인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5>는 스토아 철학의 이성중심적 사고관을 소개하며, 이성이 인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기에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연명하는 것은 영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보며 안락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3)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제시문 1>~<제시문 5>는 안락사의 필요성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크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2문단	②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5>는 ‘개인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인간의 자율성, 주체성을 강조하며 이성이 없는 상태의 인간의 생명을 연명시키려는 시도는 영혼을 배신하는 것이기에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드러낸다.
	③ <제시문 1>은 말기환자의 정신적 불안과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연명에 집중하는 서양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안락사는 개인의 존엄과 삶의 가치를 존중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④ <제시문 2>는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통해 자율성과 주체성을 획득하여, 자신의 실존을 채워나가는 존재라고 말하며,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위해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⑤ <제시문 5>는 스토아 철학의 이성중심적 사고관을 소개하며, 이성이 인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기에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연명하는 것은 영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보며 안락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3문단	⑥ <제시문 3>와 <제시문 4>는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안락사를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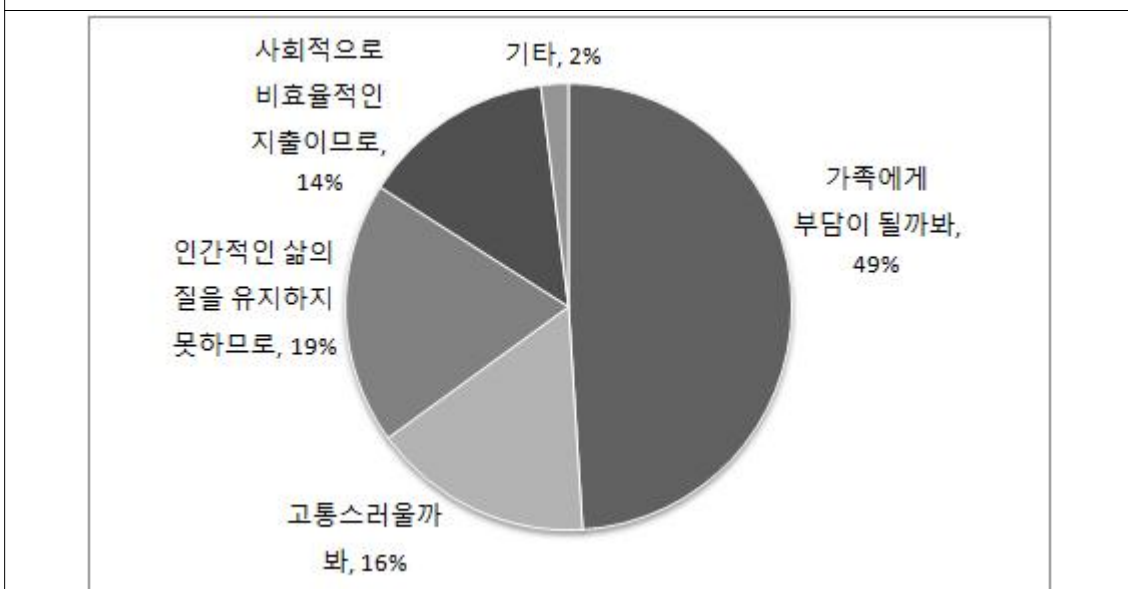
	인의 인권과 존엄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유지해나가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접근하며, 사회를 위해 안락사를 찬성한다.
⑦	<제시문 3>은 사회 전체의 효율과 복지를 위해 우생학적 관점에서 안락사를 지지하는 공동체주의적 시각을 소개한다.
⑧	<제시문 4>는 사회적 효율성을 위해 '피임'을 통해 개인들의 무모한 증식을 막는 것처럼 안락사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 2] 아래의 <자료1>과 <자료2>는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불치병으로 인한 생명연장치료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집단의 의식조사 결과들 각각이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이를 이용하여 <자료 3>이 보여주는 안락사에 대한 견해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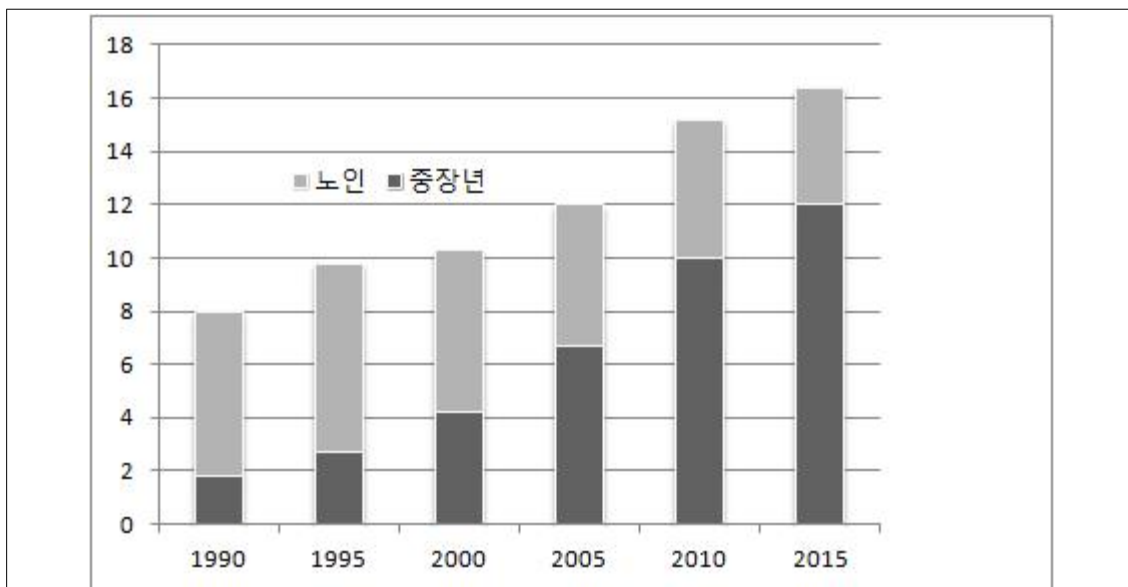
<자료1> 중장년(40세 ~ 59세)



<자료2> 노인(65세 이상)



<자료3> 불치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안락사 비율



* 1990-2015년 기간 중 전체인구에서 중·장년과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것

* <자료1>과 <자료2>에 제시된 의식조사 결과는 1990년-2015년 기간 중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

1) 각 집단의 의식 조사 결과들 각각이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자료 1> ~ <자료 3>의 통합적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장년층은 안락사에 대해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나, 노인들은 안락사에 대해 공동체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왜냐하면 <자료 1>과 <자료 2>의 비교를 통해 중장년층은 노인들에 비해 안락사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고통스러울까봐’, ‘인간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지 못하므로’를 이유로 생명연장치료를 부정하는 비율이 높으나, 노인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안락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지출이므로’를 이유로 생명연장치료를 부정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 <자료 3>이 보여주는 안락사에 대한 견해의 변화를 설명

둘째, 안락사에 대한 관점은 안락사를 선택한 집단의 비율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하였다. 왜냐하면 <자료 3>에서 알 수 있듯 1990년에 안락사를 선택한 노인의 비율이 안락사를 선택한 중장년층의 비율보다 3배가량 높았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비율이 역전되고, 2015년에는 안락사를 선택한 중장년층의 비율이 안락사를 선택한 노인들의 비율보다 3배가량 높아졌기 때문이다.

3) 답안작성

1문단 <자료 1> ~ <자료 3>의 통합적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장년층은 안락사에 대해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나, 노인들은 안락사에 대해 공동체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왜냐하면 <자료 1>과 <자료 2>의 비교를 통해 중장년층은 노인들에 비해 안락사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고통스러울까봐’, ‘인간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지 못하므로’를 이유로 생명연장치료를 부정하는 비율이 높으나, 노인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안락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사회적으로 비효율적

	인 지출이므로'를 이유로 생명연장치료를 부정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문단	둘째, 안락사에 대한 관점은 안락사를 선택한 집단의 비율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하였다. 왜냐하면 <자료 3>에서 알 수 있듯 1990년에 안락사를 선택한 노인의 비율이 안락사를 선택한 중장년층의 비율보다 3배 가량 높았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비율이 역전되고, 2015년에는 안락사를 선택한 중장년층의 비율이 안락사를 선택한 노인들의 비율보다 3배가량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제 3]	아래 <보기>의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한 입장만 취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그 입장을 정당화시오. [40점]
<보기>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2016년도 3월부터 전국 병원 17곳에서 실시된다.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의 경우 지금까지는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호스피스 고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부터는 말기암 환자들이 의료보험의 지원으로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의사, 간호사까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도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	
<답안 - 찬성 측>	
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찬성한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의 찬성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의사, 간호사의 도움 아래 말기암 환자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죽음 앞의 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엄하고도 평등한 존재라는 이상과 달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는 이러한 이들에게 현실적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여 죽음 앞의 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제도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의 찬성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말기암 환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말기암 환자를 둔 가족은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리고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커져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경제적 도움으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은 말기암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축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 전체적으로도 말기암 환자의 막대한 연명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보다는 존엄성을 지키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답안 - 반대 측>	
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반대한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반대논거는 다음과 같다. 일부 환자 특히 저소득층 환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심지어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연명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환자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가족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더 커진다. 즉, 이 정책은 저소득층 환자 등 일부 환자들에게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명치료의 기회를 빼앗은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반대논거는 다음과 같다.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의 시행은 불필요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연명치료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달라지지 않은 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연명치료에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은 크게 줄지 않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비용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비용의 증가는 결국 사회구성원 전체의 부담이며 결과적으로 환자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